



2차 자신학화 포럼

#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

평창 켄싱턴 호텔  
10.04(월)~07(목)

2<sup>th</sup>

자신학화 포럼 위원회  
Self-Theologizing Forum

# 김교신과 자신학:

##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 서론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이 내 안에서 관심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틀림없이 김교신의 자신학에 관한 '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독서의 제한과 실력의 한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현재 내가 지닌 지식과 관점을 통하여 김교신의 자신학의 근거 혹은 흔적을 찾는 일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토록 중요한 주제가 신학계와 선교계에서 일찍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극히 지엽적인 토론의 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된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촉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텍스트를 가지고 나의 컨텍스트로 '과감하고 조심스럽게, 모험적으로 신실하게' 진입하려는 인식론적 각성이 새롭더라도, 감히 새로운 도전에 뛰어 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성의 틀에 충분히 길들여졌다는 의식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존재적 차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일어났던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적 동의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보호하려는' 윗사의 명령에서 벗어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를 충분히 신뢰하는 존재가 될 때만, 자신학 논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결국 자신학에 관한 탐구는 신자의 존재적 조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김교신의 자신학의 흔적들은 이미 명백히 알려진 대로 a.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하나님의 손에서 빛어지는 '순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려는, 전적 기독교를 향한 열망의 분비물이었다. b. '조선인임'을 기꺼이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말씀의 진리위에 세워진 조선, 곧 조선산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갈망의 분비물이었다. c. 수출국의 사회문화적 인습으로 옷 입혀진 수

입산 기독교가 거의 영원한 탐욕적 자기중심성을 만나, 본질의 숭고함을 자기중심적 익숙함에 가두는 시간 속에 익혀지면서 형성하는 못난 습관들을 떨어내고, 성경이 응원하는 삶과 역사의 본질을 결코 잃지 않으려는 영혼의 분비물이었다. 한마디로 김교신에게서 발견되는 자신학의 본성은, 자기중심적 죄의 본능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여 빚어낸, 소위 기성의 것들에 대한 두 반응 사이에 위치한다. 한 편에는 본질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 반감'에 터하여, 창조적 새로움을 의지함으로 생성하는 결과물(함석헌과 류영모)이 있고, 다른 편에는, 기성의 것에 대한 '사대주의적 모방'에 터하여 이미 확보한 안전의 틀에 거하려는 열망의 결과물(당대 기성교회)이 있다. 김교신은 전자와 친근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양 편으로부터 비껴가는, 혹은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진 어떤 것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본질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 반감으로 취하게 되는 것에는, 또 다시 본질을 제압하고 멸시하는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아주경제 논설실장 이상국이 2020년 8월 10일자 논설에서 주장한 논지를 요약하면 '류영모는 국가의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으로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의 극복에 일찍이 눈을 뒀고, 함석헌은 해방 후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과 외세의 개입으로 격화된 한국전쟁, 그 후 권력의 부패와 군부 쿠데타 등의 국가폭력을 경험하면서 국가본위의 기독교를 버리고 류영모 사상의 품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으나, 국가에 대한 함석헌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사망했던 김교신은 여전히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지만, 이상국의 논지는 류영모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다. 물론, 조선에 대한 김교신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만한 증거들이 명백하다. 1933년 1월 11일자 일기장에는, '조선을 알고 조선을 먹고 조선을 숨 쉬다가 장차 그 흙으로 돌아가리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교신의 조선은 국가주의자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타국이 아니라 조선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조선 백성을 사랑하는 길에 관하여 묻고 답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의 이런 마음은 1940년 10월 14일자 일기에 잘 나타난다. 길 닦으라고 할 때 도움 주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약간의 노력을 줄이려고 개천 모래를 파서 쓰지 않고 노상의 것을 파 가면서도 하등 미안스러운 안색도 없는 백성, 이 백성이 우리 동포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니 긴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본질적인 변화 앞에 선 백성으로서의 조선을 구하고자 했고, 그것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고 고백함으로, 사도바울의 걸음에 함께 하려 했을 뿐이다. 김교신이 오늘까지 복음주의 기독교계 안에서 류영모나 함석헌 보다 지속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주고 다시 살피야 할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추구한 진리 추구의 보편성과 본질의 순전함이 담지하고 있는, 균형의 힘 때문일 수 있다.

그의 자신학적 표현을 포함하여 우리의 심장에 미치는 김교신의 힘은 그가 추구한 균형 잡힌 진리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격적 신실성, 진리와 본질을 추구하는 동안 자신을 과감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정직성, 그에 따라 하루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상의 위대함에 대한 자각'에서 발현한다. 1935년 5월 20일 월요일 저녁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는다. '밤에 모 교우가 찾아와 생활고를 호소하다. 부탁에 못 이겨 약간의 물품을 부조하였으나,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고언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였다. 종잇장 보다 얇은 사랑을 통회 또 통회한다'. 그는 언제든지 자비와 공의, 긍휼과 진실, 신실과 옳음,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자였고, 그의 자신학은 바로 그런 '존재적 속성'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라는 말에 담긴 신비의 늪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우리는 교사 김교신이 목사였어도, 정치인이었어도, 기업의 대표였어도, 각 영역에서 탁월한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사망한 흥남질소비료공장 관리계장직을, 어떤 열정과 신실과 유능한 정책수립과 실천으로 탁월하게 수행해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었던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니까...'에 관해 추호도 의심할 길을 찾기 어렵다. 그에 따라, 자신학에서도, 결과물로서의 자신학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적 근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능히 상상할 수 있듯이, 김교신과 동시대에 공존하였던 무수한 교회와 신학교의 지도자들 안에서, 주체적 신학을 표현하고 싶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 애초에 주체적 신학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들, 그 길이 눈에 들어왔어도 용기와 지식이 적어 그 길 갈 엄두를 못 내었던 자들, 알거나 의식하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성취를 위해 그 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중을 따지자면 거의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자신학이라는 애매한 용어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주체적 신학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생각했더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수다한

마당에, 그것을 의식하고 과감하게 표현해 낼 수 있었던 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존재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에 따라 표현들은 필연적으로 그 존재적 조건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싶지만, 존재와 표현 사이의 무관성을 보여주는 예들도 허다하기에 조심스럽다. 더구나 존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태생적 본성에 기초한다면 더욱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신학의 지향점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그리고 수많은 설득력 있는 자신학 이론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각 사람에게 수용되는 여부와 정도는 또다시 존재적 속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또 다시 고민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적 결단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신비한 결합에 근거하여, 존재적 속성에 대해서도, 자신과 현실과 역사 앞에 선 존재인 자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과 돌이킴을 명하고 싶은 거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길에 관해 말씀하셨다. 저자는 그것을,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였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명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였다. 베드로의 길이 운명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의 의지적 결단을 요청하셨던 거다. 한 존재 안에는 온갖 비선택적인 요소들(태생적인 그리고 불현 듯 다가오는 것들)과 선택적인 것들(고민과 성찰과 의지적 판단에 속한 것들 - 물론 근본적으로는 고민과 성찰과 의지적 판단을 하게 하는 선재적이고 선형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으나, 자유의지에 운명성을 부여하는 순간 더 이상 자유의지일 수 없으므로 선택적이라고 해야만 한다)이 뒤섞이고 연합하여 오묘하게 조합함으로써, 주체적 존재의 성질을 이룬다. 그 성질에서 주체적 인식 가능성과 표현의 질감과 방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자신학이 '복음을 담지한 보편적 대상을 향해 실천을 명하고 원하는 도전의 문제'라면, 그것은 자신학의 정의나 자신학적 표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전에, 각 사람의 존재성찰을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김교신으로 돌아와, 애초에 제시하였던 김교신의 자신학의 흔적들인 a b c가 한 존재 안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조합된 것은 그의 태생적 속성이기도 하겠고, 그 속성이 복음과 예수에 대한 맑고 진정한 추구와 바람직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소

위 자신학화를 위한 인식론적 전제인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 폴 히버트의 글을 현대선교 15 p.15 안점식의 글에서 재인용)이 이미 김교신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자신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세계관적, 태도적 혹은 존재적 근거들(문화의 세 가지 층으로서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존재적 근거들)이 김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 본론

그에 따라 김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은 **무엇보다**,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자신과 다른 모든 진리 외적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기에, 진리의 절대성에 더 견고하게 천착할 수 있었던 존재.

**둘째**, 하나님께 의존한 주체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 했던 존재.

**셋째**,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끝없이 추구했던 존재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하므로 사람과 조국과 일상과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하기에 냉정히 비평할 수 있었던 존재.

**네째**, 하나님의 진리에 부생함으로 진리인양 가장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지켜내려 했던 존재.

**다섯째**, 상황을 인정하고 품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변혁하는 진리에 비추어, 과소한 상황화(진리를 확보하였다고 자부하는 현재의 안전을 잃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욕망의 산물)와 과도한 상황화(스스로 창조자가 되기 위해 새 것을 자기 중심으로 추구하는, 자기신뢰와 자만의 산물)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만큼, 진리를 명징하게 통찰하고, 진리의 대상(진리로 품어야 할 사람과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존재)

**여섯 째**, 하나님의 진리의 일상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존재.

결국, 김교신의 여러 자기표현들을 통해, 대략 여섯 개로 추린 그의 존재의 속성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온전히 던진 존재(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존재양식)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속성들(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속성)이라 하겠다.

내 안에서는, 김교신에게서 발견되는 바람직한 속성이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의 보편적 속성으로 제시되면 좋겠다고 하는 과도한 과제를, 수면 위로 올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자신학이 결국 철학적 신학적 성찰과 마음의 방향과 방법의 문제이기 전에, 존재의 속성에 속한 문제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각 곳에서 바람직한 자신학적 표현들이 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존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이 있었던 것이다. 김교신을 접할수록 그가 남긴 어떤 '업적'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가까이하려는 열망이 한 없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이렇게 질문하기로 하였던 거다. '누가 의식적 추구를 넘어 주체적 신학화를 이루는가? 어떤 존재에게 자신학이 가능한가?'. 부연하여, 소위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에 관한 질문이다 - 요약하여, 김교신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이다. 표현은 존재로부터의 발현인 것을 알기에, 어떤 캐릭터 안에서 자신학의 자연스럽고 온당한 향취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약소하나마, 그의 일기와 성서조선 칼럼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극소수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났던 (모두가 그랬기를 기대하게 되나 결코 그렇지 못했던), 자신학에 기여한 김교신의 존재적 조건들을 정돈함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자인 자신에 대하여 잠시라도 묻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1. 절대 진리를 날카롭게 지향함으로 진리 외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상대화 시킬 수 있는 존재 -

절대 진리의 완전함에 대한 전적 믿음 위에서 자신과 모든 진리 외적 요소들을 상대화시킴으로, 진리의 절대성에 더 견고하게 천착하는 존재, 그리하여 정당한 배제와 포용(탐욕적 종교화를 배제하고 자연적 순수를 포용)을 살아낼 수 있었던 존재.

자신학은, 어찌 보면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자세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다. 진리와 주체의 진실한 만남 위에서 진리를 주체적인 창조성으로 표현하려면, 진리 외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사용하되 그것의 절대적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학이 가능하려면 절대 진리에 대한 순전한 열망과 발견, 그리고, 진리의 사회 문화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태

생적 기질과 후천적 훈련의 사이 어디에선가 적절한 조합을 이루는 태도 혹은 자세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김교신은 진리와 진리의 본질을 알고자, 진리의 오리지널리티에 가 닿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원어성경연구 등). 동시에, 진리 외적인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상대화시키는 자세를 잃지 않고자 했다.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진리 외적인 모든 요소들을 상대화시키려 할 때, 최우선 대상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어야 했다. 김교신은 진리를 추구하되 자기가 진리를 담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추호도 잊지 않았다. 1934년 8월 21일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기도 하였다. '우는 어린아이를 유순한 말로 달래다가 듣지 않으므로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내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므로 한두 대 때렸더니 점점 크게 울고, 다시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매질을 하였더니 아이는 더욱 발악한다. 형세대로 가면 아이는 죽은 후에야 그칠 것이었다. 나는 아이의 아버지 될 자격도 없는 자요, 더욱이 인간을 교육하는 자로서 매우 부적합함을 절감하고 또 통회한다. 인간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깨달을 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지극히 완전함과 그 은총의 무한함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진다'.

사실 김교신은 당대 가정들의 구도에 비추어, 비교적 매우 책임적인 아버지였다. 그의 일기 여러 곳에는 자녀들의 현재와 내일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 혹은 그것을 지켜내려는 자기와의 싸움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40년 11월 19일에는 이렇게 적었다. '장남이 고무줄로 만든 새총으로 잘못하여 지하실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원칙으로 하면 책망 받아야 할 일일 터이지만 우리 집에 팔매질 하게 된 남자 아이가 성장한 것이 경사가 아니냐고 가족의 뜻이 결정되어 파손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랑으로 보면 세상 범사가 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책임과 사랑 사이에서, 공의와 용서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였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중심적 끈적거림에서 갈등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연약자에 불과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35년 4월 28일 조선극장에 가서 폭군 네로의 영화를 구경하다가 나는 그와 같은 박해에 도저히 견디어 낼 것 같지 못하여 비관이 생겼다...나는 약하고 겁이 많은 자니 한심한 일이다'. 또한 성서조선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낙심을 경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했다. 1934년 8월 10일 함(석헌) 형의 원고는 19장이 왔는데 나는 아직 단 한 장도 못썼다. 이 일을 단념하고 감자농사에 전념하고 싶다. 감자는 아무에게라도 줄 수 있고, 또 주면 고마워나 하려니와 출판물을 그렇지도 못하다. 1931년 1월 4일 내가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거나 전도자로 목숨을 걸겠다는 것 등은 전혀 뜻하는 바가 아니다. 혹시 과거에 분수를 넘어 그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면 그것은 본뜻이 아니었다고 잘못을 뉘우칠 뿐이다. 다만 변변한 오락거리를 못 가진 사람으로서 성서를 공부하며 즐거움을 찾고,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얼마 안 되는 벗들과 그 소식을 교환하고 싶은 것이 새해의 소원이다. 사명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야심도 없으니 성서조선은 물론 사업이 아니다. 아마 오락이나 여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비슷한 표현일 것이다.

무엇보다 김교신은 강자 일본에 눌린 약자 조선을 절감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었으나, 그 후 유학한 일본에서 일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그토록 신속하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화를 통해 일본인 교회에 단번에 출석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민족주의적으로건 애국주의적으로건, 확증 편향된 이념보다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절대 진리를 향한 열망을 더 중히 여기는 자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과 역사에 대한 유교의 해석을 압도하는 복음적 세계관에서 인생을 실을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복음을 향한 그의 선택은 신속하고 확고했다. 하지만 유교를 버리는 대신 유교의 가르침에 충만한 '옳은 삶'의 지향점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피고자 함으로, 자신학적 표현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나아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극도의 실망을 경험한 후, 제도 교회와 복음을 엮어 매도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 비본질로서의 교회의 제도적 습관적 장치들과 복음의 본질을 구별하려는 열망에서 우찌무라의 로마서 강해교실을 선택한 것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절대화의 위험성을 이런 방식으로 경계하였다. 1936년 11월 2일 신앙이 상당하고 성경 지식에 통달했다고 자신하는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이다... 지리 시간에 손기정에게 베를린, 파리, 런던, 덴마크, 이태리 각지 및 수에즈 운하, 봄베이 등지를 유람한 이야기를 들어서 유익하다. 김교신은 사대주의를 극단적으로 경계했으나,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객관적 지식을 확보하는 일은 즐거워하고 또 기꺼워했다. 어떤 여정을 통하여 김교신 안에 그런 힘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그는 가슴으로 파고든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다른 모든 진리 외적인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현존에 도전한다.

## 2. 하나님께 의존한 주체자가 되려는 존재

일제의 강압과 부당한 인습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작용했겠으나, 김교신의 역사의식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체자가 되려는 갈망이다. 그리고 주체자가 되려는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실체에 대한 전면적 이해로부터 발현한다. 그것이 그의 글과 삶의 추구에서 자신학의 흔적을 남길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김교신의 주체자 됨을 위한 의식은, 옳음과 바름을 열렬히 지향하는 그의 태생적 기질과 연관이 있을 성 싶을 뿐 아니라, 분명 그가 속한 시대와 문화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산물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존재로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훨씬 더 영원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938년 10월 2일 날 밝기 전 아내와 함께 청량리역으로 향하다. 귀경하시는 모친님을 맞기 위하여 (도착한) 역에서, 입장권 파는 이가 불친절하고 불성실하여 말다툼 끝에 차표 판매구의 유리창을 나의 주먹으로 파괴하는 살풍경을 초래하였다. 단 열차 도착 전 5분까지 판매구를 열지 않았다는 것과 열차가 없다 또는 연착이라는 등 거짓말을 한 것 등으로 사건 발단의 책임이 모두 판매계원에게 있었음이 명백하여 유리창 변상 요구도 취소되고 우리 부부 입장료도 안 받는다고 해서 일단락되다. 예수의 결전 같은 이 사건을 보고 일반 승객들이 심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청량리 역원들의 횡포와 태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심지어 청색 제복 입은 철도 품팔이꾼까지 나에게 접근하여 찬사를 말하면서 나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김교신이 그 날의 사건을 '예수의 결전'으로 이름한 걸 보면,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했다고 볼 근거가 가능하다.

성서조선 92호(1936.9)에서의 고백은, 그의 이런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체의식을 잘 반영한다. 이런 때에 우리의 친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치무라 간조가 아닙니다. 영웅이 못 되어도 나는 나요 신학설이 변천하여도 나는 나입니다. 선생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는 논법은 제게 하등의 권위가 못됩니다. 이제 우치무라 전집 20권을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고증하기도 성가신 일이지요, 했다고 해도 우리 영혼에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하든지 신

앙을 의(논)하든지 우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김교신의 '나는 나 의식'에 분명코, 하나님이 내신 고유한 존재, 각 사람의 특성에 적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존재, 하나님께 부속할 때 가장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서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충분하여 비교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각성과 열망이 담겨 있을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교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주체자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주체의식이 조선인들 안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 따라, 제국주의적 자신감에 감염된 지배적 태도나 그러한 추구들에 대하여서는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의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933년 2월 5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저녁 6시 반 YMCA에서 류(영모)선생의 요한복음을 청강하다. 공부하던 중에 한 미국인이 들어오더니 GOSPEL=God's Son Our Savior Provides Etenal Life라 해석한다고 운운하여, 미국식의 천박함에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 오만함에 분개하다. 동시에, 외세의 혐오스런 지배적 태도에 저항할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조선인들의 무책임성에 한탄하였다. 1939년 1월 20일 저녁에 교풍회(동네 자치조직 - 옳지 못한 풍속이나 습관을 고쳐 바로잡는 모임이라는 뜻)에 나가니 내가 없는 동안에는 예정된 행사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었으므로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교풍회의 일에 대해서도 나는 완전히 속았다. 회장이란 명의만 빌리면 실무는 자기들끼리 다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반 년 만에 일꾼들은 슬금슬금 피해 버리고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사람 나 혼자만 남은 셈이다. <성조>지 창간 이래로 이와 같은 동일한 처지에 빠져들었던 일, 빠지는 일들 생각할수록 나 자신이 미련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11시에 흠어지다. 바빠서 못 자고 분해서도 못 자고.

태생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무엇보다 복음과의 뿌리 깊은 접촉으로 인해 형성된 주체 의식에 따라, 김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의 바다에서 주체적 책임자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태어난 '나'를 인정하고, 내가 태어나 자란 '곳과 그 곳의 향취'를 인정하여, 그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흉내 내려는 모든 시도들이나, 타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 안에서 경험된

것으로 타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와 권력과 습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거절하는 악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김교신은 불의와 허위에 극히 엄정하였고, 형식과 의례를 강요하는 조회나 교내외적인 의식이나 회식 등에는 거의 불참하였다. 심지어 이왕전하가 학교를 방문하는 날에는 왕이 방문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 3.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끈질기게 지향하는 존재

사람과 조국과 일상과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나 사랑하기에 냉정하게 비평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존재.

김교신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자 했다. 자녀들과 아내, 모친과 제자들을 향한 그의 태도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자녀들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상태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옳음에 대한 열망과 품음의 분투 사이에서 고민하며 사랑하였고, 아내에 대하여는 아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정절과 책임으로 사랑하였고, 모친에 관하여는 일관된 효심으로 사랑하였고, 제자들에 관하여는 최고의 모범생과 최악의 불량생 모두가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동시에, 조선 백성들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심정으로 사랑하였다. 그가 함흥질소비료공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40평생 처음 민족을 나의 체온 속에서 만나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착하고 불쌍한 이 민족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기 전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물어야 한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미 성서조선 창간호(1927.7)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바 있다. 저에게 한 가지 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의 지극히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의 모든 외형을 보고 낙심저두(바라던 일이 이뤄지지 않아 머리를 숙임)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저의 심장에 새로운 고통을 주어 제 머리는 쳐들어지고 저의 눈에는 희망의 광채가 방사된 때가 몇 번이었던가요!...이 글은,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조선의 딸들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에 얼마나 맑은 순전함이 있었던가를 예상할 수 있다.

자신학의 근간에는 필시 '주신 것, 받은 것, 주어진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나를 둘러싸고 이미 형성된 것'에 대한 사랑(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김교신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과 신뢰로 섬기는 하나님이 부여하여 자기 존재의 일부 혹은 환경을 구성한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고자 하였다. 1939년 7월 24일 돌아가신지 1주년 되는 작은아버지 산소에 이르러 통곡이 폭발하여 제지하려고도 안하고 힘껏 소리 질러 실컷 울다. 고아처럼 울다... 동생과 조카들을 거느리고 가족의 명맥을 부지할 자로서의 나의 유약하고 용렬함이 날이 갈수록 드러나니, 받은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여 만든 나 자신을 위하여 통곡 또 통곡하다. 동시에 진실로 사랑하였으므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기를 갈망했고, 그에 따라 그 질서에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떼어놓고 비평할 수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적 표현을 신학이라 명할 수 있다면, 그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사람 자신'을 향한 신적 사랑에 연대하는 신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기성교회로부터 한껏 멀어진 인사들과도 친밀했을 뿐 아니라, 동네 작은 교회의 주일 학교 교장을 맡기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족 외에 무려 9명 이상의 학생들을 식솔로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무엇보다 김교신의 주체적 신앙은 예수님 사랑의 우선적 대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잘 표현되었다. 특히 그는 고난받는 조선 백성과 소록도 나환자들 사이에 일정한 일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가장으로, 지리선생으로, 말씀강론 선생으로도 분주한 형편에, 성서조선을 만들어 배부하기까지의 고된 여정으로 인해 잡지발간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수차례였으나, 그 시간 김교신을 다시 일으킨 힘은 소록도 나환자(문신환)에게서 날아 온 한 통의 편지였고 김교신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적 추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나의 일생에 가장 큰 사변 중 하나이다(1935년 3월 일기 중)'. 그리고 두 달 후인 성서조선 76호(1935년 5월호)에는 이런 글을 실는다. 본지(성서조선)를 강대에서 소개한 목사(손양원 등)는 이단자로 몰고, 구독하던 신도는 교회에서 축출되고 본지로서 위안을 얻던 환자는 병상에서 핍박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고 답답한 지, 장구 하였습시다. 조선을 위하여 생각할진대 차라리 성조지는 없느니만 같지 못하다고. 그러나 이제 나환자의 입증을 보니 우리를 괴롭게 하던 의운(의심의 구름)

은 비산(날아 흩어짐)하였습니다. 신학자가 멸시하려거든 하십시오. 교권자가 핍박하려거든 하십시오. 죽음에 임한 나환자가 읽고 환희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문자가 성서조선의 주조로 기재되어 있다 할진대,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을 승첩(이김)하는 음신(소식)을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고 할 이가 누구입니까? 기독교계의 여론이야 여하하였든지, 고통의 극, 비수의 단(슬픈 근심의 끝)에 처한 형자(형제와 자매)가 본지로 인하여 함께 주그리스도를 송영할 때에 성서조선 발행자로서의 양심의 평정을 비로소 느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사랑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게 지당하다면, 김교신의 사랑이 그러했다. 1938년 6월 10일 돼지 물먹는 것을 관찰해보니 그들 세계에는 강하고 큰 놈이 정의자인 듯하다. 또 병아리 중에 약한 것 하나가 여러 마리에게 뜯겨서 거의 죽게 된 것을 특별 보호하여 따로 두고 지렁이 두어 마리 캐어 먹였더니 곧 낫 익어 나를 따르는 것이 심히 측은하였다. 같은 달 21일 키우던 개가 어제 아침에 나간 것이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은 식구를 나누어 동소문 부근까지 찾아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3일 만에 스스로 찾아온 개를 보면서)... 전에 개장수가 와서 3원에 팔라 5원에 팔라고 했다고 하나, 이제는 천 원 주어도 안 판다고, 팔 수 없는 개라고 분명히 말하기를 (가족들에게) 명하다. 1938년 11월 20일 오늘 앞 시내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생석회를 뿌리고 작은 물고기 무리를 모조리 잡아갔다고 하여 분한 마음을 제지하지 못하다..그렇게 예쁘고 생생약동하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과학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이 더욱 원통하다. 1937년 3월 1일 산상의 기도터를 장끼, 까투리 한 쌍이 먼저 차지하였으므로 저들을 놀래지 않고자 내가 피하여 주다.

무엇보다 김교신의 사랑은, 태생적 속성이나 상황적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굴복에 더 가까운 존재의 몸부림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의 사랑은 예수에 대한 전적 따름이 요청하는 의지적 순종의 산물이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이념이나 상황에 덜 휘둘리면서,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창조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었고, 결과적으로 주체적 자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는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용서 혹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찾아가는 '비상한 순종'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결과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1938년 9월 30일 새벽에 산상 기도 중에 성령의 강압을 느껴,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의 의지로써는 굽힐 수 없는 자아를 굽히고 모씨와 면담하다. 그 결과 세상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전개되다. 인간으로서 나의 인품은 낮아졌으나 나의 마음은 심히 가볍고 만족스러웠다.

#### **4. 진리가 선명함으로 진리의 본질로부터 비본질을 속히 발라낼 수 있는 존재**

진폐 인식에 완전할 때 위폐를 속히 구별하듯, 전인적으로(기도와 건강, 이성적 헤아림과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 진리를 향함으로, 진리의 중심에 선명히 다가가, 진리에 부생하여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로부터 진리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지켜낼 수 있었던 존재.

김교신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에 가깝거나 먼 언어들에 무엇이든 쉽게 알게 된다. 김교신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거나, 어느새 그의 내면에서 창조되어 그의 존재와 결합한 언어들, 꾸며지지 않은 예수와 그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 그 자체 특히 조선인과 조선의 역사, 예수의 생명과 사람 사이 모든 일상에서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적 소통 등이다. 반대로 그의 내면에 뱉어내고자 했던 것들은, 인류의 자기중심적 욕구에 의해 자기 절대화 과정을 거쳐 생명을 가두는 힘으로 작동하는 고정된 제도나 형식, 그와 관련된 교파적 신조와 관행, 교파중심주의, 조직교회의 형식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 타자와 타자의 것에 대한 불관용주의, 율법주의적 성례전주의, 그리고 그것의 국가적 형태인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와 그것에의 편만한 굴복 등이다. 이런 추구와 배제의 지속적인 여정으로부터, 그의 조선산 기독교, 전적 기독교가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교신은, 현실의 안정성 보다 복음의 위험성에서 진실을 찾고자 했다. 복음의 본질은 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불안을 품는 길임을 잊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비상하고 유명한 글을 여기 또 다시 인용하려 할 때, 벌써 비장해짐을 느낀다. 성서조선 8호 1929.8 안심에서 비대하기 보다 불안에서 수척하여지기를. 마비되어 부생(덧없이 삶)하기 보다 각성하며 고민하기를.... 오오 사실을 사실대로 합시다. 이를 음위(어두운 곳에서 속임)하는 종교나 학자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또 멸망하리라.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 알 길

은 없으나(아마도 진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자신의 존재와 눈앞의 일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반복하는 대화를 통해 형성되었을), 본질과 본질에 속한 것들, 복음 본질의 요청에 따라 품어 사랑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든 대상들을 한껏 포용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욕망에 기울어진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하려했던 담백하고 단호한 태도에서 우리는 자신학을 향한 그의 존재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과감함이 충만했다. 1938년 2월 22일 이번에 졸업하는 5학년 반을 담임한 후로 한 가지 저들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으로 은근히 자신했던 것은 저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양성해 준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중의 한 사람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 화가 그 학생에게 미쳤을뿐더러 그 담임교사와 학교에까지 미치리라고 한다. 명령에 의해 제1학년부터 권면하면서 써 왔던 저들의 일기를 모조리 소각하라고 설득하고, 나 자신의 일기도 10살 된 때부터 성서조선에 공표하기까지 기록한 부분 약 30여권을 모조리 소각하기에 동의하다. 생각할수록 애석하기도 하나 복지 혹은 중지의 전쟁 지역에서 살다가 불에 소식된 셈 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은, 비본질에 속한 것을 과다하게 중히 여기려는 교회의 행태들에 대하여 분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에 따라 본질을 흐리는 허위적 요소들을 극도로 혐오하였다. 성서조선 32호(1931.9) 우리 조선에서 관혼상제의 예의를 존중하던 결과로써 가경할 만하던 귀중한 예절이 도리어 허례위식에 타류(나쁜상태에 빠짐)함을 종종 목도하는 바인 것처럼, 유대 민족 전반이 조선 민족의 조상숭배보다도 더한 열성으로써 예배하던 하나님께 대하여도 허위가 생기하게 되었습니다...기독신자 중에도 혹은 박수답죽(손뼉을 치며 발을 내딛음)하며 혹은 전신을 용약(좋아서 땀)하며, 혹은 기성(기묘한 소리)으로 절규하며, 혹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여.... 그러나 이는 다 하나님을 저능아로 취급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전지와 전애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치임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진리의 본질에 더 가까운 표현과 실천이라면, 그것이 입고 있는 옷 따위는 쉽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였다. 그에 따라 그는 성서조선 창간사에서부터 이 추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도 조선 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 후에는 마6:33을 묵상하는 중, 현대의 기독교도들보다 고대의 동양인들이 그 말씀의 정신을 더 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는 한 편(성서조



선 35호, 1931.12), 하늘에서 온 자라야 하늘의 소식을 여실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자만으로 경박한 기독교도들이, 본질을 추구한 사상가들이나 순수한 영혼들을 쉬이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는 경박하고 고만(뽐내어 거만함)한 기독교 국민들이 걸핏하면 이교도라 칭하여 공맹노장이나 석가, 소크라테스도 일괄하여 아프리카 토인과 같은 미개인으로 취급하려 하는 만행에는 심히 분만(분한 마음이 일어나 답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교훈의 존귀함을 인식함에 결코 타인보다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성서조선 36호, 1932.1).

## 5. 진리의 속성 곧 균형 잡힌 상황화를 자기 안에서 이루는 존재.

우리의 존재적 속성 상, 처한 상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찌라도, 그것을 부수려는 몸부림을 전제한 진리추구는 우리를 균형 잡힌 상황화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진리의 속성에 사로잡힌 자는 과소한 상황화(현재의 안전을 잃지 않으려는 의심과 두려움의 산물)와 과도한 상황화(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에 대한 자기중심적 추구가 만드는 자기신뢰와 자만의 산물)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진리에 대한 명징한 통찰과 진리의 대상(진리로 품어야 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애정을 확고히 하는 자세(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세)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일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연관된 자세일 수 있고, 진리의 확고함에 의지한 깊은 자신감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고, 한 편으로는 진리가 향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연관된 자세일 수 있다. 그에 따라 김교신은 정치사상의 프레임이나 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라는 틀이나, 심지어 무교회의 프레임으로도 사람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대로 복음의 진리와 사람됨이라는 창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파악하고자 했다. 1935년 3월 5일 일기다. 양정고보 제19회 졸업식에 여운형 씨의 축사가 있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의식에 다소라도 인간미가 붙었다. 한 번은 류영모의 특이한 관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요한복음 강의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과 분분함이 있었다. 이 때 김교신은 그 현상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1937년

1월 3일 류영모 선생의 독특한 요한복음관을 듣고 일동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류선생은 특이한 해석을 가지고 계시나 남의 신앙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자기 성서관을 쉽게 공표하시지 않는 터인데, 수년간의 간청에 의하여 오늘 요한복음 3:16을 설명하시니 처음 듣는 이가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김교신은 류영모 편에 서서 청중을 비난하지 않았고, 청중 편에 서서 류영모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양편을 다 헤아렸다. 가르치는 자의 강의나 듣는 자의 반응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일절 훼손을 끼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교신은 춘원 이광수로부터 신앙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문한 자리에서, 그의 진지하고 겸허한 태도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이후 이광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김교신의 설교가 사람의 책임과 의무와 행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보낸 편지(믿음과 은혜를 너무 무겁게 여김이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에 흐르지 아니할까 하오니... 왕국은 행함에서 온다고 믿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리할 뿐이었다. 더 나아가, 류영모와 절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누군가의 강권에 대해서도 까닭을 알 길이 없다고 반응했는데, 김교신에게 류영모의 가르침이 독특함일 뿐이었던 이유는, 김교신이 소유한 진리가 사람의 해석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김교신은 또한 당대의 교회들이 외치는 도시의 마귀성을 가볍게 제친 후, 지리학적으로 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50년 100년 후의 발전을 상상하며 설계하는 일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 설파하였다(1939년 9월 27일자 일기). 진리의 부요함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정도는 세상을 품는 여백의 정도와 결합한다.

## 6. 하나님의 진리의 일상성을 입증하려는 존재

일상에 침투하지 않는, 일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김교신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자 하였다. 자신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신학 시도들은 허망한 주장에 그칠 것이다.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고자 했다. 그가 우치무라를 통해 자각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일상적인 삶의 일치였고(양현혜 2020.1.14 크리스천 투데이), 그것을 자신의 일상에서 전인격적으로 행동하려 힘썼는데, 거기에서부터 김교신의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김교신은 일상 그 자체를 살아가는 순수와 겸손과 소박과 단순의 조선인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무엇보다 자신과 이웃 조선인들의 일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는데, 일상에 닿아 있는 영원의 차원에 대한 김교신의 인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 1939년 2월 28일 참으로 산 자는 단 하루를 살았어도 영생한 것이다.

일상의 중대함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김교신의 일기장에 종종 등장하는 자신의 날들에 대한 기록방식이 관심을 끈다. 당대에 그런 기록방식이 보편적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김교신은 종종 자신이 출생 후 살아온 날들이, 그 날까지 과연 몇 날이 흘렀는지를, 날 수로 계산하여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사람으로, 참신자로, 참 교회로 살아가야 할 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선물로 인식한 것들은 자신의 시간 뿐 아니라 몸과 관계와 주어진 모든 일들을 포함한 거였다. 그에 따라 그는 거의 초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였고, 상황의 변화를 넘어 모든 날에 냉수마찰을 하여 몸과 마음을 달련하고자 노력했고, 온전한 사랑과 헤아림의 방식으로 가족과 학생들과 이웃주민들을 대하려 힘을 다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칫 금욕주의자의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였는지 그는 자신이 금욕주의를 경계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성서조선 35호 (1931.12) 기독교자는 단지 소극적 금욕주의자가 아니요, 또한 단순히 미래의 천당만을 동경하는 자도 아니요, 실로 현실 생활에서 위대한 욕구를 품고 맹렬히 친구(나아가 힘써 구함)하는 자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는 집 앞 농사와 가축 돌보는 일에 힘을 썼다. 일상의 소소한 노동이 진실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 8월 25일 돈으로 땅을 사는 일과 사법관청에 등기 수속하는 일이 토지의 주인 되는 일이 아니요, 흙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는 일이 그 흙,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인 것을 알다. 김교신은 자녀들에게 자상했고 사랑하는 동안에 정직과 옹음을 가르치는 일에 노력을 다했다. 고대하던 딸의 보통학교 입학 날, 딸의 년수가 정식 입학날짜로부터 3일이 부족한 것을 알

게 되는 순간 고민 끝에 입학시키는 것걸 단념하면서, 날짜를 몰래 고칠까 생각했던 시간을 회개했다. 동시에 일상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허례적 의식으로 희생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영하 18도에도 학생들을 조회와 체조를 빌미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교사들만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있는 행태에 분개했다. 그에게는 일상의 국면들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신앙과 능히 양립해야만 한다는 각성이 풍부했다.

결국, 김교신의 직업은 하나였다. 그의 직업은 성서조선 발간도 아니었고 학교 교사도 아니었고 말씀 교사도 아니었다. 오직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였다. 그리고 그 생명을 표현하는 옷은 얼마든지 독립적이면서도 다양할 수 있었다. 성서조선 143호(1940.12) ..... 이는 우리의 본직이 잡지 발간도 아니요, 집회 개최도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거하여 살고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이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 환난이 임하되 궁하지 않고, 진퇴유곡인 듯하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핍박받되 주님의 저버림이 되지 않고, 공격받아도 아주 멸망되지 않고 견디어 나가는 것은 질그릇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1932년 7월 일기. 원하건대 게으름으로 악을 행하는 일 없이, 쓸데없는 세포분열만 하다가 조선적인 환갑잔치를 베푸는 추태를 보이기 전에 노동장에서 땀 흘리다가 쓰러지기를.... 개인이나 교회나 물질계나 영계나 독립하여 독자적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된다.

## 결론

<자신학의 존재적 근거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라는 주제는 태생적으로 결론이 뻔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을 쉬이 하게 되는 우리가 자신학 논의를 펼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만 했다. 자신학 논의의 터미널이 결국, 진리를 받아 살아내야 하는, 신자 각 자의 존재적 각성의 자리라면, 우리는 논리정연한 자신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자신학을 위한 존재적 근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야만 하리라 생각된다.

## 읽고 참고한 것들

1. 김교신(KIATS 엮음), 한국기독교지도자 강단설교 김교신, 흥성사, 2009
2. 노평구 엮음, 김교신전집 별권 김교신을 말하다, 부키, 2001
3. \_\_\_\_\_, 김교신 전집 4 성서연구, 부키, 2001
4. 김교신선생 사업회, 김교신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흥성사, 2016
5. 박찬규 엮음, 김교신 거대한 뿌리, 익두스, 2011
6.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7. \_\_\_\_\_, 윤치호와 김교신, 한울, 2009
8. 박경미 외, 서구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9. 김학균 엮음, 김교신 수필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7.
10. 김교신전집 별권, 김교신을 말한다. 부키, 2001